발간자료

• **Market Weekly_Check ME up (8월 5주차):** '9월 인하에 대한 기대가 유효하나 FOMC 이전 고용과 물가지표의 조건 부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관망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국면. 고용지표가 극단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이 아니라면 9월 상반월까지 가장 중요한 사안은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들의 상승 탄력일 수 있음. 물가지표들이 확인되는 9/10~11일까지 제한된 등락 폭 내에서 관망세가 연장될 가능성 존재. 특정 업종의 주도력이 강한 흐름이라기 보다는 구심점이 부재한 순환매 성격의 흐름이 연장될 수 있음. 헬스케어, 필수소비재 및 미디어/엔터 등 매크로 변수에 덜 민감한 업종들로의 대응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며, 고배당 스타일도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을 듯

(투자전략 조병현)

• **8월 금통위 Review 예상보다 매파적:** 8월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결정(2.50%, 인하 1인 소수의견). 3개월 내 포워드 가이던스 인하 5인, 동결 1인. 25년 경제성장률(0.8%→0.9%) 0.1%p상향 조정, 26년 경제성장률(1.6% → 1.6%) 유지. 전반적으로 시장 우려보다 더욱 매파적. 특히 부동산대책 관련 정부와의 공조 필요성, 내년도 성장률 상저하고 언급 등이 매파적. 그럼에도 10월 인하는 기정사실화(인하 사이클 유지, GDP갭 -1%p 근접). 다만 시장금리에 연내 1회 인하 가능성 대부분 선반영. 앞으로 시장이 최종금리에 대한 의구심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3년물은 밴드에서 고정, 오히려 장기물이 일시적으로 반등했다가 하락할 가능성. PD협의회에서와 같이 2026년도 예산안이 시장 컨센서스 범위 내에 해당한다면, 향후 금리는 수출 및 거시건전성 리스크(석화업종 구조조정, 건설투자 부진 지속) 소화하며 장기물 위주로 하락 가능

(채권분석 허정인)

• **자동차(Overweight):**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의 중장기 기업가치 반등에 필요한 핵심변수들이 부각되기 시작. 하이브리드 총 판매량이 2025년 100만대 돌파 확정. 연간 약 119만대가 기대되며, 혼다를 제치고 글로벌 No.2 하이브리드 메이커로 등극. 팰리세이드, 텔룰라이드가 하위 세그먼트 차종인 싼타페, 쏘렌토 판매량에 2026년부터 수렴하기 시작할 전망

(자동차/이차전지 유지웅)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본 자료를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인수·합병의 주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추천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계열사가 아닙니다. 당사는 동 종목에 대해 자료작성일 기준 유가증권 발행(DR, CB, IPO, 시장조성 등)과 관련하여 지난 12개월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에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재해당 기업의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조사분석담당자는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나눔스퀘어'와 '아리따 글꼴'을 사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투자등급 비율

BUY : 90.9%	HOLD : 9.1%	SELL : 0.0%

투자등급 관련사항

아래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기대수익률을 의미

- BUY: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이상
- HOLD: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이상~ +15% 미만.
- SELL: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미만.

투자 의견이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등급 기준과 일시적으로 다를 수 있음
동 조사분석자료에서 제시된 업종 투자의견은 시장 대비 업종의 초과수익률 수준에 근거한 것으로,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의견과 다를 수 있음

- Ov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Neutral: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Und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 경우

주) 업종 수익률은 위험을 감안한 수치